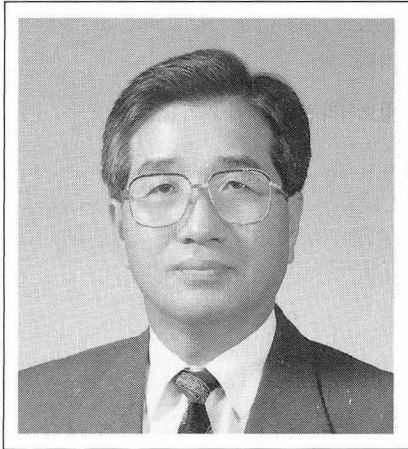


불황 타개책과



교보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 이 장 규

오늘날 우리 경제의 불황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에 만연되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중소기업의 부도는 더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한때 선진국들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던 우리 경제는 바다에서 헤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정보통신업계의 새로운 국면이다.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내년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개방된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다수의 기업들이 커다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벼랑끝에 몰린 우리 경제가 이제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아마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문구들 - ‘중견그룹 군살빼기’ ‘알짜사업 챙겨 불황 극복’ ‘전략적 제휴로 불황 극복’ ‘경영혁신 지속해야 불황 타개’ 등 - 을 접하다보면 현 국면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경영혁신 움직임은 제조업계를 위주로하여 전개되고 있는데, 생산성 배가 운동이나 불량률 제로를 타겟으로 한 ‘100PPM 품질 혁신운동’, ‘기업간의 공동 마케팅’ 등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각 기업체에서 서둘러 도입하고 있는 ‘정보화 마인드’이다. 이들이 선도하고 있는 정보화의 내용은 경영정보 시스템(MIS) 외에도,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서 BPR을 통한 ERP 도입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제품의 생산이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불합리한 업무 프로세스를 줄이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보다 신속한 정보전달과 조직내의 정보 공유, 제품 생산 기간의 단축 등 비효율적인 업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는 개발 표준화와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부품 개념을 도입하여 상품개발에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필요 이상의 코스트 부담을 덜고 획기적인 개발 속도를 실현하여 수요자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화란 무엇인가. 또한 무엇을 요구하는가.

정보화란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이나 공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가장 큰 변화는 정보환경에 걸맞는 전체 프로세스의 체질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기획, 개발,

정보화 마인드

생산, 유통은 물론 회계나 인사, 개발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의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산업화 시대에는 특정 고객을 설정하지 않고 평균적인 수요를 예측하여 대량생산 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생산체제는 고객 한사람 한사람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1대 1 생산체제를 요구한다. 즉, 대량고객 생산체제(Mass Customization)로의 변화인 셈이다.

그런데 대량고객 생산체제에서의 필수 요건은 상품의 질과 서비스이다. 따라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의 유무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가격보다는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불황을 타개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이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보화에 따른 연구 개발과 사업구조 조정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가치 기준에 의거하여 전략과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비용은 업무나 프로세스의 개혁을 통해 해결하고, 저효율은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타파해야 한다. 이제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표준화되고 생산 과정이 효율화되어 있으며 그 기업 고유의 차별적 가치를 개발하는데 핵심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와같이 세계 경제는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가는 대변혁의 시대에 놓여있다. 이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개개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아무튼 오늘의 경기침체는 경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시대적 요청인지도 모른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각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여러가지 혁신 운동들은 단순히 오늘의 불황만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영질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재편성하려는 갱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정보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기술 발전이나 하드웨어의 보급, 통신 기반의 구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토양과 제도적 기반을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나아가야 한다.

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보화 정책으로 일관할 때,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에 의한 경제불황 구조는 머지않아 경제활황 구조로 돌아설 것이다. 정보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시급한 때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산업사회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선진화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